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59.21	↓ 코스닥	883.89
	(-15.51)		(-7.40)
↓ 금리 (미국 9년)	3.887	↑ 환율	1328.50
	(-0.004)		(+4.10)



尹 대통령
방미 첫날부터
9개국 양자회담 강행군
02



19일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안내견들과 시각장애인 파트너,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왼쪽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前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윌리엄 손튼(William Thornton) 세계안내견협회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박태진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교장. /삼성

장애인 인식 개선 이끈 故 이건희 회장의 혜안 JY, ‘동행’으로 잇는다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
이건희 신경영 선언 첫 CSR 사업
기업운영 세계 유일 안내견 학교
삼성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

“삼성이 개를 키운다고?”

삼성이 안내견학교를 개교하며 고(故)이건희 회장이 들은 이야기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안내견 사업은 이제는 30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식 개선에 이바지 하며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CSR)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관련기사 3면〉

삼성은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기념식 자리의 맨 앞줄에서 1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며 안내견 사업에 대한 뿌듯함을 드러냈다.

이재용 회장은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식순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마다 옆 자리 바닥에 엎드리고 있는 검은 리트리버 안내견과 눈을 맞추며 애정을 보였다.

홍라희 전 관장은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안내견 사업은) 이견희 회장님이 생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하시던 사업”이라며 “회장님이 오늘 이 30주년 기념식을 보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3년 9월 개교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고(故) 이견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직후 시작된 첫 번째 사회적 책임(CSR) 사업이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기업이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안내견학교다. 1994년 안내견 ‘바다’를 분양한 이래 매년 12~15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매칭시켜주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80두를 사회에 분양했다. 현재는 76마리가 사회에서 안내견으로 활동 중이다. 가령 10마리의 후보견들이 있다면 이중 평균적으로 3마리 정도가 안내견으로 합격해 파트너를 만날 수 있기에 안내견 양산은 쉽지 않은 숙제로 여겨진다.

안내견 사업은 삼성 고(故) 이견희 회장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은 ‘진정한 복지 사회가 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었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이는 ‘조일류 삼성’을 향한 첫 행보를 CSR 사업으로 꼽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故) 이견희 회장은 안내견 사업을 두고 ‘잔잔한 연못에 작은 돌맹이 하나를 던지는 심정’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비록 시작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라며 CS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견희 회장은 ‘동물들 통한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세계안내견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은행 대출 신규연체 석달 연속 2조 ‘비상’

7월말 원화대출 연체율 0.39%
기업 0.41% 가계 0.36%로 상승
금감원, 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

은행권이 대출 연체로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연체 발생 규모가 석달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고,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7%를 넘어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17%p나 높아졌다.

7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원이다. 작년 1조원을 밑돌던 신규 연체 규모는

지난 3월 1조7000억원, 4월 1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5월부터는 석 달째 2조원대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분기말 대규모 상·매각을 실시한 전월(3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분기 중인 지난 4월(9000억원), 5월(1조3000억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작년 7월 대비로는 0.05%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이 0.01%p 상승한 0.12%, 중소기업대출이 0.06%p 상승한 0.49%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연체율 0.51%,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45%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6%p, 0.04%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 말 대비 0.03%p 상승했다. 특히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71%로 전월 말 대비 0.09%p 높아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 말 대비 0.01%p 상승했다.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연체율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메트로경제 ‘2023 물류&모빌리티 포럼’ 성료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韓, 성장률 전망 ‘유지’… 美·日 등은 ‘상향’

OECD, 올 성장률 예측치 발표
韓 1.5% 그대로… 내년은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5%로 유지했다.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OECD는 지난 6월 전망보다 낮추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국 전망치는 올려 잡았다. 또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에 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대에서 3%대로 상향 조정했다.

1.5% 전망은 기획재정부의 정책목표(1.4%)보다 높다. 국제통화기금(IM

F)과 한국은행도 1.4%를 예상한 바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를 점치고 있다.

OECD가 기존 예측을 고수했지만 주요국에 견줘볼 때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전망은 기존 2.7%에서 3.0%로 0.3%포인트(p) 올랐다. G20 전망치 또한 중전 2.8%에서 0.3%p 상향한 3.1%로 제시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1.6%에서 2.2%로 큰 폭으로 올렸다. 일본도 1.3%에서 1.8%로 0.6%p 상향 조정했다.

이외의 전망치 상향 폭은 프랑스가

0.2%p(0.8→1.0%), 스페인 0.2%p(2.1→2.3%), 멕시코 0.7%p(2.6→3.3%), 튀르키예 0.7%p(3.6→4.3%) 등이다.

부동산경기 부진을 겪는 중국에 대해선 5.4%에서 5.1%로 0.3%p 내렸다. 최근 원유 감산조치를 지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도 2.9%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GDP성장 전망치도 지난 6월 제시한 2.1%를 유지했다. 또 올해 물가가 3.4%, 내년 물가는 2.6%로 중전과 상승 전망을 동일하게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측 전문가 2차 파견”
▲ 윤 대통령, 김동철 한전사장 임명 재가
… 내일 방문규 장관 임명

/사진 뉴스스

▲ 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40만원→50만원으로 인상
▲ 당정, 청년복지정책 내년 예산안 3309억원 추정



▲ 윤 “신도시 건설에 기여 기대” 투르크 대통령 “한국 기업 참여 요청”
▲ 감사원 “문정부, 총선 전 집값 통계 조작 확대”

/사진 뉴스스